

서울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Ⅰ 일시 Ⅰ 2012년 11월 20일(화) 10:00

Ⅰ 장소 Ⅰ 서울특별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일 정 안 내

서울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사회 : 박영선(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장)

시 간	내 용	
9:40~10:00	등 록	
10:00~10:05	개 회	박영선(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장)
10:05~10:10	환영사	서영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10:10~11:20	주제발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례발표 조수진 (좋은친구들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설문조사 결과 윤미영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 지역사회복지사 팀장)
11:20~12:00	토 론	○ 성태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 옥경원(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 최성진(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정책위원장)
12:00~12:20	종합토론	
12:20~12:30	폐 회	

서울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주제발표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과제 3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 동작구 거점센터 사업 31
조수진 좋은친구들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지정토론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37
성태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2. 거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이전에 사실상 재건축이 필요하다 47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3.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정책 제안 57
최성진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정책위원장

1

주 제
발 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과제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과제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의미

1) 거점형 센터의 의미

최근 지역아동센터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됨.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은 대상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형의 특성화, 차등화를 통해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운영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이용아동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

그러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구체적인 선정 자격이나 과정, 그리고 사업 운영모형이 제시되지 못하여 사업 운영의 혼란과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더불어 거점센터에 대한 기존 센터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거점형 센터의 역할, 개념을 명확화하고, 거점센터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운영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증가됨. 이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고, 관련 이슈를 살펴본 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

계와 운영 모형을 제시함.

지역아동센터는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됨. 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운영의 효율화(부담 경감), 수요 및 대상의 변화 등은 지역아동센터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외부적인 노력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함.

- 내부적 변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화
- 외부적 변화: 아동보호 사업의 조정 및 연계

2.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1) 거점형 센터의 기초적인 연계 및 협력 수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센터 간 네트워크의 수준이 기초적인 연계 및 협력 수준이었으며, 전문적인 공동 사업의 개발이나 프로그램 실행은 부족한 수준임. 또한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의 수는 소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임.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학습 프로그램에 편향되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구체적인 연계 및 협력사업의 모형 제시와 함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2) 거점형 센터의 사업 목적에 대한 인지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목적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거점형 센터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나 목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는 확보됨.

그러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화시키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거점형 센터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 실천 역할에 대해서는 인지도 낮게 나타남.

따라서 거점형 센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의 구체적 실천 방법 및

거점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3) 거점형 센터 사업의 만족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사업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분석결과, 거점형 센터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간의 단편적인 연계 및 교류를 늘리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나 인적, 물적 자원의 구축 및 활용과 같은 전문적인 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영역에서는 전문적 역량이 부족했다고 평가함.

특히 사업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크게 낮아 사업에 적합한 수준의 예산 미지원이 사례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미비와 인적, 물적 자원의 미구축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됨.

4) 거점형 센터 사업의 성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초적인 연계 및 정보 공유, 소규모 센터에의 도움 정도 등 기초적이거나 초보적인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심층적인 네트워크가 기초되어야 하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즉 사례 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그리고 고위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등의 영역에서는 성과가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거점형 센터 사업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영역까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적합한 모형 개발이 요구됨.

3.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관련 이슈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이슈

- 거점형 센터에 대한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의 모호
- 선정과정 및 평가 체계의 확립 필요

- 절대적인 예산의 부족
- 운영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 분담 모호
- 거점형 센터의 역량 부족
- 기존 센터의 이해 및 참여 필요

2)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모형의 핵심적인 목적 및 주요 사업은

- ① 센터 간 연계망 구축
- ② 공동 프로그램의 실행
- ③ 사례관리실천의 지원 및 실행
- ④ 소규모 또는 신규 센터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

거점형 센터의 기능

- 센터간 네트워크 강화
- 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교육 및 사례관리, 공동사업 등)
- 신규 센터나 소규모센터 운영자문
-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부담 경감

3) 선정과정 및 평가 체계의 확립

또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과정 및 평가체계 역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 ① 거점형 센터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② 지역별로 몇 개의 거점형 센터가 필요한 것인가? ③ 기대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④ 거점형 센터의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거점형 센터의 목적 달성과 선정 및 평가 과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점형 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관계 및 역할, 그리고 드림스타트 센터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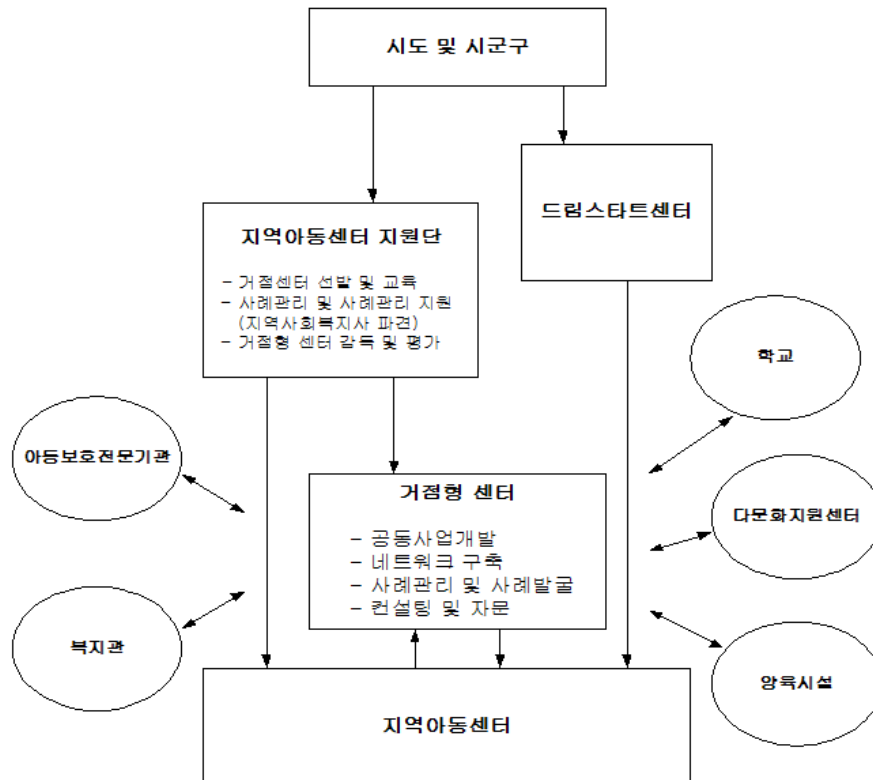
거점형 센터와 지원단과의 역할 및 관계 정립 필요. 지원단의 경우, 지역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사례관리 및 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음. 이름 그대로 일반 지역아동센터나 거점형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거점형 센터의 운영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

예를 들어, 지원단은 ① 거점형 사업 기관을 선정 및 평가 등의 관리,

② 사례관리실천 교육 및 인력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거점형 센터와 지원단의 관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드림스타트 센터와의 관계 및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드림스타트 센터와의 역할분담이 여전히 모호하며, 기대만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큼.

5)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계



4.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세가지 운영모형의 제시

1) 거점형 센터의 운영체계 및 모형의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그리고 실무자 및 전문가 FGI 결과에 기초하여 거점형 센터와 관련 기관과의 관계 및 포괄적인 운영체계도를 제시함.

또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및 역할,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한 운영모형을 단순 연계형(A), 공동 프로그램형(B), 전문 사례관리형(C) 등 세 가지로 제시함.

더불어 거점형 센터의 운영체계 및 운영 모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을 제시함.

2)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모형

	모형A (단순 연계형)	모형B (공동 프로그램형)	모형C (전문 사례관리형)
특성	현재의 거점형 센터와 유사	지원단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실행	거점형 센터가 사례관리를 실행
거점 센터수	232개(시군구 별 1개소) 예산 200만원	232개(시군구 별 1개소) 예산500만원	380개 (10개소 당 1개) 예산 500만원
주요한 역할	센터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단순 지원 및 협력 공동 프로그램 1-2개 (일회형 1회, 장기형 1회) 사례관리 점검 및 컨설팅 상시적인 자문 및 컨설팅	센터 간 심층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사업 실행 공동 프로그램 5-6개 (일회형 3회, 장기형 3회) 고위험군 사례관리 상시적인 컨설팅 및 자문	센터 간 심층 네트워크 형성 및 사례관리 실행 공동 프로그램 3-4개 (일회형 2회, 장기형 2회) 고위험군 사례관리 상시적인 컨설팅 및 자문
운영및 사례관리 방법	기존인력의 활용 주요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고, 거점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지원	전담인력확충(기존인력) 주요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시도 지원단의 지역사회복지사가 실행	전담인력의 확충 주요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거점센터의 전담인력이 수행. 지원단이 사례관리지원
지원단의 역할	거점센터 기관 선정 형식적 사례관리 지원 (모형 개발 및 교육) 거점센터 감독 및 평가	거점센터 기관 선정 및 전담인력 선발 지원, 지역사회복지사가 주요 사례관리자의 역할 수행 거점센터 감독 및 평가	거점센터 기관 선정 및 전담인력 선발 지원, 거점센터의 사례관리지원 거점센터 감독 및 평가
논의점 및 한계	거점센터 사업 목적 달성 어려움 현재의 기초적인 거점센터 사업 수준	지원단의 사례관리 역할이 중요 드림스타트 센터와 역할 관계 모호	거점센터의 역량 확보가 핵심 지원단의 감독 및 지원기능이 중요

① 모형A (단순 연계형)

첫째, 단순 연계형 모형은 거점형 센터를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정하고, 현재의 거점형 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기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단순 사업 연계 및 컨설팅, 소규모의 공동사업, 그리고 단순 사례관리 지원 등을 주로 수행.

또한 200여 만원의 예산에 기초하여 거점센터와 소규모 센터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단편적인 사업 지원 및 협력을 제공,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1-2개 정도 실행하는데, 일회성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 사업 역시, 실행.

소규모 센터와 함께, 또는 소규모 센터의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사례관리를 점검하거나 사례관리 컨설팅 제공, 소규모 센터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단순 연계형 거점센터 모형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은 첫째, 거점센터 기관을 선정 및 관리, 평가.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를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즉 거점 센터형 또는 단순 연계형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

단순 연계형 거점센터 모형은 현재의 거점센터 모형에 기초하여 역할을 일부 활성화시키고, 다양화 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모형, 즉 단순 연계형으로는 거점형 센터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한계. 즉 현재의 거점형 센터와 같은 기초적인 연계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큼.

② 모형B (공동프로그램형)

공동 프로그램형은 거점형 센터를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정하여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간에 심층적인 연계를 통한 다수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또한 고위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과 연계 또는 위탁하여 지원단의 지역사회복지사 중심의 사례관리를 실행.

또한 500여 만원의 예산에 기초하여 거점센터와 소규모 센터 간 심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5-6개 정도 실행하는데, 일회성 사업(3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 사업(3회) 역시, 같은 비율로 실행.

거점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지역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행하며, 거점센터의 전담인력은 각 센터의 사례관리를 지원

공동 프로그램형 거점센터 모형에서 지원단의 역할은 첫째, 거점센터 기관을 선정 및 관리하고, 전담 인력의 선발 과정 역시, 지원단이 안정적인 인력선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력선발을 지원. 둘째, 거점센터의 사례관리를 전담. 셋째, 지원단은 거점센터의 역할지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점센터 역할의 감독 및 평가를 수행.

공동 프로그램형 모형에서 거점형 센터는 공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또 다른 거점형 사업의 주요 목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 프로그램형 거점센터의 경우, 주요 사업을 지원단과 연계하여 수행하지만 그 결과적인 역할이 드림스타트 센터와 유사하여 역할 조정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

③ 모형C (전문 사례관리형)

전문 사례관리형은 거점형 센터 380개소를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형 센터가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일반 지역아동센터의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실행. 이러한 거점형 센터 중심의 고위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지원 하에 수행.

또한 500여 만원의 예산에 기초하여 거점센터와 소규모 센터 간 심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프로그램 실행하고,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내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3-4개 정도 실행하는데, 일회성 사업(2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 사업(2회) 역시, 같은 비율로 실행.

또한 거점센터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행하며, 지원단은 거점센터의 사례관리를 지원. 또한 거점형 센터는 소규모 센터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

전문 사례관리형 거점센터 모형에서 지원단의 역할은 첫째, 거점센터 기관을 선정 및 관리하고, 전담 인력의 선발을 지원. 둘째, 거점센터의 사례관리를 지원.

전문 사례관리형 거점 센터의 경우, 매우 많은 숫자가 지정되므로 거점형 센터의 서비스 질 관리가 매우 중요. 따라서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감독을 전문적 역량을 갖춘 지원단에서 수행. 둘째, 전문 사례관리형 모형 개발 및 교육. 셋째, 지원단은 거점센터의 역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점센터의 평가 수행.

전문 사례관리형 거점 센터모형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는 380개에 이

르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 관리, 지원단의 감독 및 평가 기능이 매우 중요.

④ 모형A2 (단순 연계형2)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 거점형 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

- 지역아동센터지원단과 거점센터의 연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향상 모형
-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 강화?
 - :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 또는 유지
 - : 지역사회복지사의 거점센터 지원 및 파견

거점형 센터의 매개자 역할 강화

- 드림스타트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가교 역할 수행

5. 지역아동센터의 방향

1) 지역아동센터의 장기적 방향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방향

-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변화 및 수요 증가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다(보충적, 대리적 기능 수행)
 - : 가족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 필요.

지역아동센터만의 장점

-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적시성, 접근성, 연속성)
- 아동발달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 지역 토착형 서비스

2) 거점센터의 역할 및 기능

- 변화되는 아동복지 환경에의 적응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체계화
- 지역아동센터의 연계 및 연대 강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과제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발표 내용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의미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관련 이슈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세 가지 운영모형의 제시
- 지역아동센터의 방향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의미

거점형 센터의 의미



- 최근 지역아동센터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됨.
-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은 대상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형의 특성화, 차등화를 통해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운영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이용아동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

거점형 센터의 의미



- 그러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구체적인 선정 자격이나 과정, 그리고 사업 운영 모형이 제시되지 못하여 사업 운영의 혼란과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더불어 거점센터에 대한 기존 센터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거점형 센터의 역할, 개념을 명확화하고, 거점센터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운영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증가됨.
- 이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고, 관련 이슈를 살펴본 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계와 운영 모형을 제시함.

거점형 센터의 의미



- 지역아동센터는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됨.
- 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운영의 효율화(부담 경감), 수요 및 대상의 변화 등은 지역아동센터 내부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외부적인 노력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함.
- 내부적 변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화
- 외부적 변화: 아동보호 사업의 조정 및 연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거점형 센터의 기초적인 연계 및 협력 수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센터 간 네트워크의 수준이 기초적인 연계 및 협력 수준이었으며, 전문적인 공동 사업의 개발이나 프로그램 실행은 부족한 수준임.
- 또한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의 수는 소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임.
-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학습 프로그램에 편향되는 모습을 보임.
- 따라서 구체적인 연계 및 협력사업의 모형 제시와 함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거점형 센터의 사업 목적에 대한 인지도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목적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거점형 센터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나 목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는 확보됨.
- 그러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화시키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거점형 센터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 실천 역할에 대해서는 인지도 낮게 나타남.
- 따라서 거점형 센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의 구체적 실천 방법 및 거점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거점형 센터 사업의 만족도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사업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분석결과, 거점형 센터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간의 단편적인 연계 및 교류를 늘리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나 인적, 물적 자원의 구축 및 활용과 같은 전문적인 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영역에서는 전문적 역량이 부족했다고 평가함.
- 특히 사업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크게 낮아 사업에 적합한 수준의 예산 미지원이 사례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미비와 인적, 물적 자원의 미구축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됨.



거점형 센터 사업의 성과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초적인 연계 및 정보 공유, 소규모 센터에의 도움 정도 등 기초적이거나 초보적인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심층적인 네트워크가 기초되어야 하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즉 사례 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그리고 고위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등의 영역에서는 성과가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거점형 센터 사업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영역까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적합한 모형 개발이 요구됨.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관련 이슈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이슈

- 거점형 센터에 대한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의 모호
- 선정과정 및 평가 체계의 확립 필요
- 절대적인 예산의 부족
- 운영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 분담 모호
- 거점형 센터의 역량 부족
- 기존 센터의 이해 및 참여 필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모형의 핵심적인 목적 및 주요 사업은
 - 1) 센터 간 연계망 구축
 - 2) 공동 프로그램의 실행
 - 3) 사례관리실천의 지원 및 실행
 - 4) 소규모 또는 신규 센터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
- 거점형 센터의 기능
 - 센터간 네트워크 강화
 - 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교육 및 사례관리, 공동사업 등)
 - 신규 센터나 소규모센터 운영자문
 -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부담 경감



선정과정 및 평가 체계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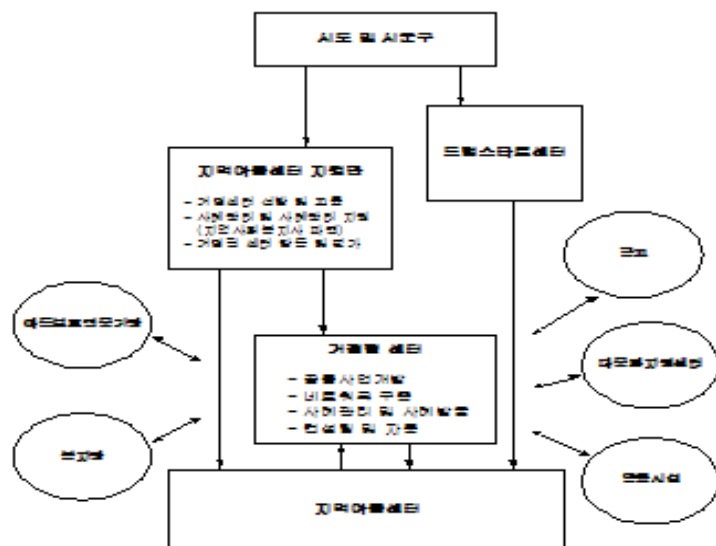
- 또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과정 및 평가체계 역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1) 거점형 센터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2) 지역별로 몇 개의 거점형 센터가 필요한 것인가? 3) 기대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4) 거점형 센터의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거점형 센터의 목적 달성과 선정 및 평가 과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점형 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관계 및 역할, 그리고 드림스타트 센터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계



- 거점형 센터와 지원단과의 역할 및 관계 정립 필요. 지원단의 경우, 지역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사례관리 및 평가 시스템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음. 이를 그대로 일반 지역아동센터나 거점형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거점형 센터의 운영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예를 들어, 지원단은 1) 거점형 사업 기관을 선정 및 평가 등의 관리, 2) 사례관리 실천 교육 및 인력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거점형 센터와 지원단의 관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드림스타트 센터와의 관계 및 역할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드림스타트 센터와의 역할 분담이 여전히 모호하며, 기대만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세가지 운영모형에 대하여

거점형 센터의 운영체계 및 모형의 개발



-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그리고 실무자 및 전문가 FGI 결과에 기초하여 거점형 센터와 관련 기관과의 관계 및 포괄적인 운영체계도를 제시함.
- 또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및 역할,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한 운영 모형을 단순 연계형(A), 공동 프로그램형(B), 전문 사례관리형(C) 등 세 가지로 제시함.
- 더불어 거점형 센터의 운영체계 및 운영 모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을 제시함.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모형



	모형A(단순 연계형)	모형B(공동 프로그램형)	모형C(전문 사례관리형)
특성	모형의 거점형 센터와 유사	고형단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실행	거점형 센터가 사례관리주 실행
거점 센터수	- 232개(시군구 별 1개소) - 예산 200만원	- 232개(시군구 별 1개소) - 예산 500만원	- 380개(10개소 별 1개) - 예산 500만원
주요관 역할	-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을 통한 단 순 고형 및 공동 - 공동 프로그램 1-2개 (리모달 1회, 장기용 1회) - 사례관리 점검 및 컨설팅 - 상시적인 자문 및 컨설팅	- 센터 간 상호 네트워크 활성 및 공동사업 실행 - 공동 프로그램 5-6개 (리모달 3회, 장기용 3회) - 고위험도 사례관리 - 상시적인 컨설팅 및 자문	- 센터 간 상호 네트워크 활성 및 사례관리 실행 - 공동 프로그램 3-4개 (리모달 2회, 장기용 2회) - 고위험도 사례관리 - 상시적인 컨설팅 및 자문
전문 및 사례 관리 방법	- 기존인력의 활용 - 주요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각 고 형아동센터에서 수행하고, 거점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지원	- 전문인력활용(가진인력) - 주요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시도 고형단의 고위험도사업가 실행	- 전문인력의 활용 - 주요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거점 센터의 전문인력이 수행, 고형단이 사례관리지원
고형단의 역할	- 거점센터 기관 선별 - 공식적 사례관리 지원 (모금, 교육 및 교육) - 거점센터 감독 및 평가	- 거점센터 기관 선별 및 전문인력 선별 지원, - 고위험도사업가 주요 사례관리자의 역할 수행 - 거점센터 감독 및 평가	- 거점센터 기관 선별 및 전문인력 선별 지원, - 거점센터의 사례관리지원 - 거점센터 감독 및 평가
논의점 및 과제	- 거점센터 사전 교육 및 컨설팅 - 모형의 기초적인 거점센터 사전 수주	- 고형단의 사례관리 역할이 중요 - 드림스타드 센터와 역할 연계 필요	- 거점센터의 역할 확보가 핵심 - 고형단의 감독 및 지원기능이 중요

모형A(단순 연계형)



- 첫째, 단순 연계형 모형은 거점형 센터를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정하고, 현재의 거점형 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기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단순 사업 연계 및 컨설팅, 소규모의 공동사업, 그리고 단순 사례관리 지원 등을 주로 수행.
- 또한 200여 만원의 예산에 기초하여 거점센터와 소규모 센터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단편적인 사업 지원 및 협력을 제공,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1-2개 정도 실행하는데, 일회성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 사업 역시, 실행.
- 소규모 센터와 함께, 또는 소규모 센터의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사례관리를 점검하거나 사례관리 컨설팅 제공, 소규모 센터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모형A(단순 연계형)

- 단순 연계형 거점센터 모형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은 첫째, 거점센터 기관을 선정 및 관리, 평가.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를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즉 거점 센터형 또는 단순 연계형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
- 단순 연계형 거점센터 모형은 현재의 거점센터 모형에 기초하여 역할을 일부 활성화시키고, 다양화 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모형, 즉 단순 연계형으로는 거점형 센터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한계. 즉 현재의 거점형 센터와 같은 기초적인 연계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큼.



모형B(공동 프로그램형)

- 공동 프로그램형은 거점형 센터를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정하여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간에 심층적인 연계를 통한 다수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또한 고위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과 연계 또는 위탁하여 지원단의 지역사회복지사 중심의 사례관리를 실행.
- 또한 500여 만원의 예산에 기초하여 거점센터와 소규모 센터 간 심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그램을 5-6개 정도 실행하는데, 일회성 사업(3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 사업(3회) 역시, 같은 비율로 실행.
- 거점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지역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행하며, 거점센터의 전담인력은 각 센터의 사례관리를 지원

모형B (공동 프로그램형)



- 공동 프로그램형 거점센터 모형에서 지원단의 역할은 첫째, 거점센터 기관을 선정 및 관리하고, 전담 인력의 선발 과정 역시, 지원단이 안정적인 인력선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력선발을 지원. 둘째, 거점센터의 사례관리를 전담. 셋째, 지원단은 거점센터의 역할지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점센터 역할의 감독 및 평가를 수행.
- 공동 프로그램형 모형에서 거점형 센터는 공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또 다른 거점형 사업의 주요 목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 매우 중요할 것이다.
- 그리고 공동 프로그램형 거점센터의 경우, 주요 사업을 지원단과 연계하여 수행하지만 그 결과적인 역할이 드림스타트 센터와 유사하여 역할 조정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모형C (전문 사례관리형)



- 전문 사례관리형은 거점형 센터 380개소를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형 센터가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일반 지역아동센터의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실행. 이러한 거점형 센터 중심의 고위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지원 하에 수행.
- 또한 500여 만원의 예산에 기초하여 거점센터와 소규모 센터 간 심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프로그램 실행하고,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내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3-4개 정도 실행하는데, 일회성 사업(2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 사업(2회) 역시, 같은 비율로 실행.
- 또한 거점센터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행하며, 지원단은 거점센터의 사례관리를 지원. 또한 거점형 센터는 소규모 센터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

모형C (전문 사례관리형)



- 전문 사례관리형 거점센터 모형에서 지원단의 역할은 첫째, 거점센터 기관을 선정 및 관리하고, 전담 인력의 선발을 지원. 둘째, 거점센터의 사례관리를 지원.
- 전문 사례관리형 거점 센터의 경우, 매우 많은 숫자가 지정되므로 거점형 센터의 서비스 질 관리가 매우 중요. 따라서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감독을 전문적 역량을 갖춘 지원단에서 수행. 둘째, 전문 사례관리형 모형 개발 및 교육. 셋째, 지원단은 거점센터의 역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점센터의 평가수행.
- 전문 사례관리형 거점 센터모형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는 380개에 이르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지역 아동센터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 관리. 지원단의 감독 및 평가 기능이 매우 중요.

모형A2 (단순 연계형2)



-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 거점형 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
 - 지역아동센터지원단과 거점센터의 연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향상 모형
 -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역할 강화?
 - :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 또는 유지
 - : 지역사회복지사의 거점센터 지원 및 파견
- 거점형 센터의 매개자 역할 강화
 - 드림스타트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가교 역할 수행



지역아동센터의 장기적 방향

-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방향
 -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변화 및 수요 증가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다(보충적, 대리적 기능 수행)
: 가족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 필요.
- 지역아동센터만의 장점
 -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적시성, 접근성, 연속성)
아동발달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지역 토착형 서비스



거점센터의 역할 및 기능

- 변화되는 아동복지 환경에의 적응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체계화
- 지역아동센터의 연계 및 연대 강화

2

주 제
발 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2012 동작구
거점센터 사업

조수진
좋은친구들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발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2012 동작구 거점센터 사업

김수진 좋은친구들 지역아동센터

1. 목적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나누고, 정보의 교환과 공유,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임과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고, 욕구를 해소해주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수준을 향상 하고자 한다.

2. 내용

- 1) 교육
- 2) 워크숍
- 3) 동아리 활동
- 4) 미지원 시설 지원

3. 운영 체계

- 동작구 공부방 협의회를 중심으로 동작구 내 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 지역 내의 교육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활용
- 서울시 지원단 지역사회복지사와 협력

4. 세부 사업 내용

1) 교육

프로그램 명	복지요결 강독
날 짜	2012년 3월 22일 ~ 4월 13일 (매주 목, 금)
시 간	10:00 ~ 12:00 (총 16시간)
목 적	사회사업의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을 정립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 상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생활복지사
프로그램 내용	
1회(3/22) : 사람과 사회,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 가치 2회(3/23) : 사회사업 이상, 사회사업 철학, 사회사업가 3회(3/29) : 사회사업 주안점(생태, 강점, 관계) 4회(3/30) : 사회사업 방법 5회(4/5) : 사회사업 조사, 기획, 평가 6회(4/6) :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 7회(4/12) : 사례관리1 8회(4/13) : 사례관리2	

프로그램 명	사례관리 교육
날 짜	2012년 5월 7일 ~ 5월 21일 (매주 월)
시 간	10:00 ~ 12:00 (총 6시간)
목 적	사례관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사업 실천 영역에서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한다.
대 상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생활복지사
프로그램 내용	
1회(5/7) : 사례관리의 흐름도, 입소, 주요정보수집 2회(5/14) : 사례관리의 구체적 방법, 사정하기, 위기도 사정결과표 3회(5/21) : 일반아동 사례관리, 사례관리 양식	

2) 워크샵

프로그램 명	쉽과 회복을 위한 1박 2일 워크샵
날 짜	2012년 4월 27일 ~ 4월 28일 (1박 2일)
목 적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함께 사회사업 실천 현장을 방문함으로 교사의 역량과 교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대 상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생활복지사
장 소	강원도 태백 철암어린이도서관,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프로그램 내용	
4월 27일 (금) 10시 출발 14시 태백 도착 점심식사 15 ~ 18시 철암어린이도서관, 철암 마을 방문 19 ~ 20시 저녁식사 20 ~ 22시 철암 사례 특강 22시 ~ 태백고원자연휴양림에서 휴식 및 취침 4월 28일 (토) 9 ~ 12시 함백산 산행 및 대화, 황지 연못 산책 12 ~ 14시 점심 식사, 서울로.	

3) 동아리 활동

- * 목적 : 지역아동센터 교사 간에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모임과 활동을 통해 공감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기간 : 2012년 8월 ~ 12월
- * 불링(주1회) - 강습 및 게임
- * 사례관리(3주 1회) - 초기조사부터 종결까지 서류를 작성해보고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감으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4) 미지원 시설 지원 - 3개 기관 연합 바자회 및 음악회

프로그램 명	신규 지역아동센터 연합바자회 및 음악회		
일 시	2012년 9월 22일 (토) 12:00 ~ 18:00		
목 적	동작구 미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를 알리고자 한다.		
장 소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남부교회)		
참 가 기 관	흑석희망 지역아동센터,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예사랑 지역아동센터		
후 원	동작구청, 동작구 공부방협의회, 동작구 거점기관 좋은친구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프로그램 내용			
제1부	12시 ~ 15시	○ 바자회 슬러시, 와플, 솜사탕, 떡볶이, 순대, 가래떡, 어묵, 녹두전, 해물전, 주먹밥, 오징어젓갈, 튀김, 약세사리, 가방, 기증품 ○ 체험프로그램(모빌 및 인형 만들기) ○ 레크레이션(소도구 게임 및 민속놀이 체험)	
제2부	15시 ~ 17시	○ 공연 : 흑석지역아동센터 음악회 악기연주 - 드럼,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초청가수, 뮤지컬, 댄스, 독창 및 합창 특별출연 - 푸른나무, 예사랑 지역아동센터	
제3부	17시 ~ 18시	○ 마무리 및 귀가지도	

5. 평가

교육과 워크샵,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매일 협의회 회의를 통해 만나는 선생님들과는 다른 일상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관계들이 새롭게 피어나고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 내 기관들의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마음들이 연결되어 미지원 시설 후원을 위한 연합 바자회에 동참하였고,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한다.

1

지
토
정
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성태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지정토론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성태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도입배경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003개소에서 107,171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고 있는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기본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로의 제대로 된 진입절차나 운영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교육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별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역량의 편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운영자의 철학이나 설립배경에 따른 운영방식의 다양성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면조차 있기도 하지만, 운영역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표준을 침해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역량을 저해하는 것은 공적 서비스를 담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의 희생을 나몰라라 하거나 민간에게 감질날 만큼의 지원금만을 주고 입을 닦아왔던 것이다. 지금은 그런 발언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제도화 초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의례 정부 관료들은 ‘좋은 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뭘 그리 돈을 자꾸 밝히시냐’며 떳떳이 핀잔을 주곤 했던 것이다. 그런 정부의 인식을 바꾸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자

신의 존재 가치를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계속 알려온 면도 있지만, 출산 파업이나 연속적인 아동 성폭행 사건의 발생 등과 같이 아동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들이 큰 몫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작금의 운영역량의 편차는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 특히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 질 높은 종사자들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문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 및 지역사회 환경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 정부 정책의 획기적 결단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 해결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안들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그 중 거점형 사업 역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점형 사업의 도입은 몇 가지 매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증액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가지 해법은 바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것인데, 거점형 사업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한다. 더불어 복지부가 동일한 논리로 기재부를 설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인데, 거점형 센터를 설치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연계나 운영의 허브 구실을 하게 되므로, 노하우가 많은 센터가 지역의 다른 센터들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니 이로써 정부의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고, 앞서 말한 운영의 편차도 줄여볼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는 그 동안 현장의 이야기도 힘을 실은 바 있다. 특히 신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른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든지, 혹은 그런 책무를 띠고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든지, 무언가 잘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으니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안을 고민하던 학계와 정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역할들이 세분화되고 좀 더 특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거점형은 그런 서비스의 세분화와 특성화의 한 영역으로써 설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많은 수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중심 기관으로써 행정이나 다른 지역사회 기관들과 혹은 지역아동센터 자체의 중심으로써 역할을 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 등등이 거점형 기관을 낳게 한 또 다른 요인들이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 모든 거점 기관의 의미는 지역아동센터 전반이 최소한 운영의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난 후에야 제대로 된 자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거점 센터의 문제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2.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현실과 문제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두고 말이 많은 것은 처음부터 거점형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어떤 센터가 맡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렵고, 어떻게 선정해야 좋을지 그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런 방식이 지역아동센터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다. 즉, 복지부가 희미한 상과 현장의 감을 중심으로 애매한 방침을 내리면 다양한 상황의 현장들에서 이런 원칙과 방침들이 어긋나고 꼬이면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방식 말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냥 운영비나 일괄적으로 올려주고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두지’하는 한숨 섞인 푸념들이 나오곤 한다. 물론 복지부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 줄 모르지 않으나 기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잘해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잣돈도 아닌데 거점형 사업을 돌려 타기를 한다든가, 인력을 채용하고는 입을 싹 씻고 말아 그럴 거면 왜 받았냐고 지역의 원성만 높아진다는지,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다가 지역사회 연계는커녕 괜히 의만 더 상하는 보기 좋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누워서 침 뱉기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문제점들 위에는 거점형의 위상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거나, 혹은 거점형은 복지부의 힘들 털어 주는 것이라는 솔직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현상을 두고 다른 해석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안다. 일부에서는 거점형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모델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거점형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거점형의 모습에 염증을 느낀 현장들은 이런 지적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진실로 거점형이 무엇을 해야만 옳은가에 대한 현장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점형의 모델이 제시되고, 일부 역량 있는 센터들이 그 역할을 자임하거나 혹은 선택된다면 이런 회의적인 반응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거점형을 야무지게

운영해도 그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일부 의견으로 거점형 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안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가정들 중에서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를 거점형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은 모든 센터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성이다. 그 중 지역사회 한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전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점들이 적지 않다.

첫째, 현재 그 수준과 명칭을 둘러싼 서비스의 규정을 두고 현장과 복지부간의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관리 영역에 이미 사례관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지역아동센터들이 아동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입절차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과 실천적 함의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준이다. 이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소위 집중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넘어선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때 거점형이 사례관리를 전담한다면 이런 아동을 다시 거점형으로 넘기고, 거점형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중간적 단계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더 바람직한 모델은 개별 지역아동센터들이 각각 집중지원 아동을 선별하고, 이를 사례관리할 수 있는 지역체계 속에 의뢰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 아동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까 정도의 정보를 얻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거점형 사례관리 센터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따라서 거점형 센터보다는 현재 지역사회복지사 제도와 같이 지역사회안의 네트워크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지원가를 두는 형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즉, 현재 거점형에서 고용한 인력들이 거점형 센터의 슈퍼비전 아래 지역사회 자원과 체계를 연구하며, 지역의 전체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사례를 의뢰받고, 이들에 대

한 지원을 각각의 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기관을 방문해가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지원단이 지역사회복지사를 통해 2010년 이래로 ‘아동사례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시 지원단은 수년간 지역사회복지사 제도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전문 사례관리자원을 양성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있는 기존의 자원을 폐기하고 거점형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례관리 지원체계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서울시의 지역사회복지사들은 각 구를 중심으로 종사자 사례관리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조직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과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단일 현장에 얽매이지 않아 비교적 지역사회 전체를 파악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드림스타트의 위상 정립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사업을 드림스타트로 이관하고, 드림스타트를 아동복지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참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의 전담 인력들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 욕구가 절실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솔직히 드림스타트의 변신이 별로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나 원하는 시도만이라도 지역사회복지사 제도를 온존시켜 사례관리형 거점형 사업과 그 성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만약 거점형의 사례관리가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지원을 한다면 과연 현재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지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거점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사례관리지원과 실행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사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는(예를 들어 놀이치료실 등이 있는 곳에서 이를 제공)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 어떤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일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지원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 말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식이라면 결론적으로 현장에서는 거점형 사업에 대해 계속 기대와 불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거점형 센터들이 수행한 사업을 보면 그것이 거점형의 이름을 달고 한 사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지역의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종사자 교육 등을

충실히 수행한 곳을 제외하고, 특히 일부 연계프로그램의 수행이나 지역단위 사업을 시행한 경우 더욱 그렇다. 일부는 반드시 거점형이라서가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사업비가 더 들어오면 마땅히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연계 프로그램의 지원도 운영이 어려운 센터를 연계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운영이 어려우면 그 센터에 그냥 운영비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텐데 어째서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인가 말이다. 센터는 어떻게 되더라도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복지부의 가락한 뜻이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아니라면 연계 활동을 통해 운영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일 텐데, 그런 점이 현장에서 가능한 구조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연계 사업을 진행할 경우 거점형에서는 별도 인력에 대한 지원비는 별로 없다는 뜻이 될 텐데, 그러면 거점형 인력들이 사업 수행하랴, 운영 컨설팅하랴 눈 코 뜰 새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지원은 절감하고 바라는 것은 엄청 많은 것이 복지부의 방식인 듯싶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무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반푼이 방식일 뿐이다.

3. 결론

토론문을 보면 거점형 사업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 각각에 대한 평가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단순 연계형은 단순 사업 연계 및 컨설팅, 소규모의 단순사업 진행, 단순 사례 관리 지원을 하는 곳이라 규정하고 있다. 단순 연계형에 대해서는 거점형을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각각 단위 사업을 수행할 때 그에 걸맞는 사업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단순 연계형은 마치 콜센터처럼 지역의 센터들의 소규모 민원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이는데, 이런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한 센터가 그 모든 욕구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차라리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협의회들이 합의하여 컨설팅이나 연계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장의 사정에서 보면 모든 현장들은 서로 의지하며 공생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맺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가진 장점도 있으므로 오히려 거점형이란 이름으로 무게를 더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주변부들을 편재하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 프로그램형은 지역아동센터들 간의 심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수의 공동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단의 지역사회복지사가 전담 사례관리자로서 붙는 형을 일컫는다고 되어 있다. 공동 프로그램형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전문사례관리형과는 달리 지원단의 역할이 일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아 지원단의 지원과 지도 아래 전담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거점형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발제자가 사례관리에 초점을 주어져있어 이를 두고 B형과 C형으로 나누는 듯 하여 결론적으로는 거점형을 사례관리 중심으로 바꾸자는 단순 논리로 치환하여 이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이 공동 프로그램형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난 해 부스러기에서 주최한 거점형 토론에서도 발제자와 토론자는 똑같은 주제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토론자가 주장했던 ‘두 날개 전략(two-wings system)’을 여기에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한다.

두 날개 전략의 주요 목적은 공동 사업 수행을 통한 실무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둔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신규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컨설팅 대상 센터는 자신을 지원해줄 거점형 센터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컨설팅은 그 대상자의 자발적 변화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신이 선택한 거점형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모든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점형으로 지정된 센터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과 교육 및 교사회이나 부모모임 등 각종 공동 운영과정에 대한 계획서를 낸다. 두 기관은 1년 동안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하며 그 과정에서 종사자 회의나 운영체계에 대한 점검 및 부모교육이나 운영위원회 등 각종 실무를 공동으로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기관들은 역량 있는 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바로 옆에서 보게 될 것이고, 공동으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각종 운영체계를 마련하게 되니 간접적으로 운영지원의 효과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거점형은 공동으로 아동들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거점형은 컨설팅과 공동사업을 통한 지원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성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업은 거점형을 맡는 기관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의 다른 기관들도 거점형의 사업을 존중하고 그 역할을 칭송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기관이 거점형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업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거점형은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두 날개 전략은 역량 있는 튼튼한 한 쪽 날개의 힘으로 다른 쪽 힘 없는 날개의 부담감을 덜고 우리가 가고자하는 목적지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공동 프로그램의 의의는 이런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문사례관리형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한 것으로 같음을 하고자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내년의 변화를 앞두고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장을 안정화시키고 바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이 동요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현재는 가장 필요한 일이다.

끝으로 거점형에 대한 논의 속에는 특수목적형 센터와 관련한 논의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 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안과 관련을 맺고 있는 내용들으로써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현재 모든 예산과 정책은 지역아동센터 전반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를 안정화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먼저 실천한 후 다른 모든 논의가 따라와야 한다. 거점형 역시 이 점에 있어 마찬가지이다.

거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이전에 사실상 재건축이 필요하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지정 토론 2]

거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이전에 사실상 재건축이 필요하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1. 신도시 건설보다 더 어려운 뉴타운 개발!

1) 총체적 견해

보상, 이해관계, 강제 철거, 강제 이주.....

신도시는 택지개발과 더불어 도시 환경과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다양한 여건들이 거주하는 이들이나 외부인들에게도 매우 편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오래된 구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장벽과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보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강제 철거로 발생하는 이주민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효과도 있다지만 상반된 이주민들의 대책도 함께 거론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오늘, 우리가 정책의제로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거점의 역할 과제도 엄밀히 보면 신도시 개발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 사이에서 거점을 뽑아내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아동센터의 구조 속에서 다시금 재개발함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러 잡음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타 시설들로 하여금 견제를 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변수로 등장한 드림스타트와 제 기능의 궤도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시•도 지원단, 그리고 각 지자체와 개별센터들 사이에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입장이 모호해졌다. 반면에 권한은 없어서 거점 역할을 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였다. 연구된 발제 내용에서도 단편적 연계 외에는 거의 미흡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적은 예산에 미션 자체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선 목적 성취가 불투명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권한도 없는 채 공감대와 동조를 이루어 내는 것은 시간도 필요할뿐더러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사례관리’라는 과제는 이용자들이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관리 기관이나 사례관리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환경들 앞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본 연구 발제에 나타난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노력한 거점형 센터들로서는 매우 억울하거나 부당한 대우임에는 틀림없다.

인력 고용이 되어도 계약직에다 매 년 1, 2월이면 끊겼던 사업비용은 거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면도 크다. 발제에 이러한 부분은 모두 빠져있다.

이러한 환경적 제한들은 일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들이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에 부담감이 컸으며 단순한 연계나 소단위 프로그램을 선택할 여지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점들은 발 빠르게 적응하여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으나 대개 역할과 과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가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는 것은 선부르지 않은가?

2. Managed Care(관리보호) 차원의 접근 오류

본 연구 자료에는 거점형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단계별 유형구분과 발전방향에 대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 것에서 동의하나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관리보호 차원의 접근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선 과제는 관리보호를 위한 결과물 곧, 실적이나 결과물을 당장 해 놓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의 모든 구성원과 전달체계들이 한데 모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만 사실상의 사례관리나 결과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2011년도에 명분 설정이 잘 안된 상태로 출발한 거점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2012년도에 당장 어떤 결과물들을 내 놓으라는 식의 평가는 있어서 안 될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기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 또 그 일들 중에서 다른 기관들보다 좀 더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 기관들과의 존중 속에서 어울려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와 어떻게 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교육하고 지지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 성격보다 민간의 의미가 더 강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각 지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틈새를 찾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전달체계가 있는데 또 하나 변수로 등장한 ‘드림스타트’와의 관계설정도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독립적인 아동복지 전달체계로 보기보다는 수직적 관리보호의 의미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 지원단 역시 거점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자원을 연계하거나 모금활동 또는 인력 지원 등의 협조체계가 아닌 단지 파견형식과 관리 감독의 기능이 확대된 것은 매우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만나면서 어쩌면 상호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 할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한 후 사회복지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와 ‘되돌이 과정’을 겪게 되나 지금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적용된 조합은 각 영역에서 시작된 사업을 한데 모아 구성의 조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한 전달체계는 상위 기관으로 또 한 전달체계는 하위 기관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정책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이 되었다..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조손가정이 많은 지역, 도시 빈곤지역, 농·산·어촌, 사창가나 사행성 산업이 발달한 곳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특수한 센터들처럼 지역별, 문화별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양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형, 강점형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이것은 발제문의 세 가지 모형을 개념화 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 영향력과 단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모형 C에 귀결하나 단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장을 열어두는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각 지역에서 선발된 거점센터들이 자기역할의 강점을 찾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례관리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의 동향에서도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단지, 관리보호차원의 보수적 시스템 구축은 결국 지역아동센터 간 서열을 조장할 것이고 단지 관리보호만을 위해 본질이 바뀐 거점형들이 생겨날 때, 현장에서 종사하는 지역아동센터 간의 갈등의 폭은 깊어지게 될 것이다. 가장 위협적인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난관은 가장 먼저 턱없는 예산을 편성하고서 큰 결과물들을 기대하는 것과 두 번째로 지역에서 공감을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 성과들을 요청받음으로 인해 지역 내부적인 갈등과 시기(猜忌), 구성원들의 옹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지원단이나 유관기관들은 이 점에 시각을 맞추어야 하며 사업 수행에 있어서 ‘잘했고 못했음’에 대한 관리 보호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방법과 다를 바가 없으며 현장 밀착형, 지역에 흡수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해 주길 바란다.

3.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블랙홀 속의 블랙홀’

최근 지역아동센터는 늘 ‘블랙홀’같은 역할을 해 왔다. 주5일제 수업에는 토요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전가되었다. 토요일에 시설 운영을 해도 부담이고 하지 않으면 죄인 된 마음이 어떤 시설장에게나 존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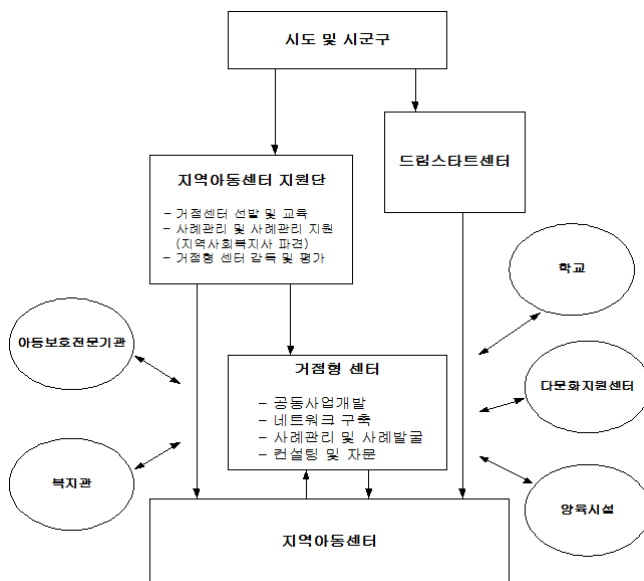
학교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상담사는 상담하는 일에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는 사이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담당했던 빈자리를 시설장, 종사자들이 적지 않게 대리하게 되었다. 뜨거운 여름날 폭염 쉼터로 개방을 해야 하는가 하면 집단 급식소로서의 기능, 더 나아가 일부는 서울시 모 구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처럼

일반 아동청소년의 놀이 공간 또는 도서관으로도 개방할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사고 이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 여기에 대한 세밀한 서비스 영역의 고지, 내지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하겠다.

4. 지원단에 관용하나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는 냉정한 견해

현장에서 많은 시설 운영자들이 공감하는 것 중 하나는 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도 매 년 본회에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동복지교사, 곧 비정규직 파견 인력에 대한 인권이나 사회적 정책 의제들이 도마 위에 오르락내리락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정화 하였는데 지원단이 이러한 인력 시스템으로 사례관리나 평가 시스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5년간의 강점중심, 아동중심, 가족중심의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던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나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의 경우에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다양성을 이 모든 것을 1년 내에 평가 역량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원단은



전국의 시·도지원단을 통 털어서 하는 의미일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 또한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한 이용자들의 문제들을 단기적인 파견형식의 인력 지원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상담 후 라포가 끊어지거나 단기 종결된 경우 재 상담이나 의뢰 시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사전이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발제문의 좌측의 도표를 보면 최종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집중된 수직 구조적 운영체계는 매우 비민주적이다. 그것은 역할에 있어서 드림스타트는 명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화살표의 방향성은 일반 지역아동센터를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교육권, 선발권, 인력 파견권, 감독권, 평가권이라는 가공할 만한 권한이 집중 부여되어 있는 반면 그 하부조직인 거점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 개발을 해야 하고 권한이 약함에도 지역 네트워크 구축, 소진이 잘 이루어지는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각 센터들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에 감독 평가기관으로 지원단이 설정된 것은 관리보호차원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문제는 개별 지역아동센터다. 거점의 부담에 더하여 드림스타트의 일정부분 관리 또는 역량을 지원 받아야 하고 거점으로부터 컨설팅과 자문, 그리고 지역 내 많은 유관기관들에게 도움 또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하면서도 늘 최 하부 구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계도의 불편한 오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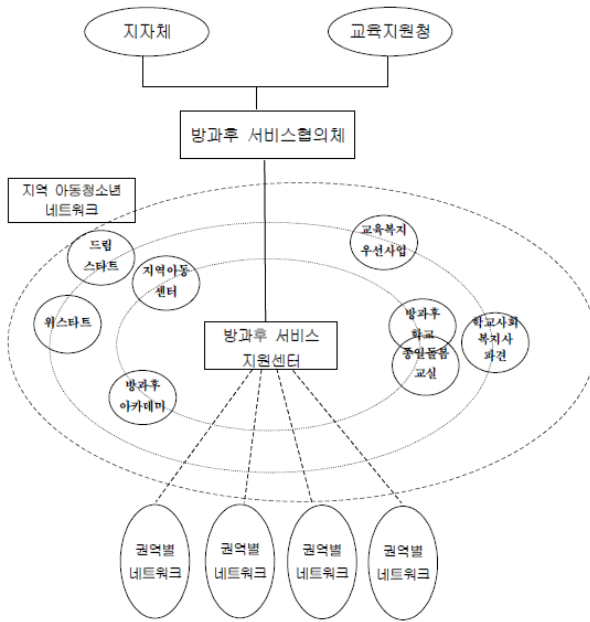
5. 이제는 수평, 통합적인 지역의 사회복지력 구축을 함께 고민할 때.

2010년도 ‘방과후 서비스 역할 분담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¹⁾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과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위 체계와는 비교적 큰 대조를 느낄 수 있다.

좌측의 그림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양간 구도가 협력하는 체제로 민관이 참여한 방과후 서비스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영역과 권역별 네트워크도 함께 담은 한 단계 앞서나간 네트워크 모형이다.

여기에는 개체 기관의 수직적 구조가 보이지 않고 상당히 민주적이고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행정망과 교육망의 뚜렷한 지역사회 유형이 구분되어져 있다.

1) 이태수 외 ‘방과후 서비스 역할 분담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그림 7] 지역사회 내 방과후 서비스체계의 종합 구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서비스 체계에서는 타 전달체계와의 조율과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 참여의 대표적 성격, 지역 내 아동센터를 옹호하고 자원간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 사회복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지역 내 ‘복지력 향상’과 지역아동센터도 아동 청소년의 서비스 체계에 들어가 지역 복지체계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을 통합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이러한 통합 노력과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만 매번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또 기존의 기관과 신규 기관 전달체계간의 충돌을 만들어내고 예민한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도 연구자께서 발제의 도표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은 추측컨대, 네 가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명제에서 출발한 것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불편한 만남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사회적 여론을 무시한 채 정책을 시행한다면 재개발 분쟁처럼 현장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에서도 상호 불신과 냉소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급 시간이 더디 걸리고 어렵더라도 제대로 구획 정비하고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력을 구축해 나가는 거시적, 발전적 시스템의 탄생을 원하는 것이다.

6.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

지역아동센터는 가장 지역에 밀착되고 가정, 가족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다양한 기능으로 열어두지 말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나 지역 토착형 곧, 사례관리 영역에서 상담과 관찰, 현장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한 발제자의 제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각 센터가 지역 내의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례관리 영역이나 네트워크 영역을 일반 센터들과 함께 조정²⁾ 하고 연계하여 실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 스스로 자기 삶을 일구어 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의 관성과 습관을 버리고 한 아동과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찾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소외와 차별, 기회 불평등의 호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거점센터와 개별센터가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자원들로 거듭나야 한다.

본 토론회를 통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보호적 측면을 다시금 제고해 주시고 현장과 이용자의 강점, 그리고 특징들을 잘 살려서 ‘잘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와 ‘감독’ 중심이 아닌 ‘지지’와 ‘옹호’를 통한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란다.

2) 조정가(Coordinator)로서의 역할과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관계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함.

3

지 정
토 론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정책 제안

최성진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정책위원장

[지정토론 3]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정책 제안

최성진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정책위원장

I. 머리말

1. 거점형 센터에 제도화의 관안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질적향상,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자원배분,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선택권 제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정부입장에서도 정부재정과 행정체계에 효율성 제공, 교육과 복지에 통합적 모델제시, 광범위한 미래사회 안전망 구축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과정 또 제도화, 구체적인 모델,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와 인식전환 등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현주소이기도 하다.

II. 몸말

2-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정부와 사회측면에서의 정책제안

1. 사회적공감대와 인식전환위한 공통의 조직 설립이 필요.

2. 부천과 강릉에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있어 교육과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 인식에 전환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있어 필수 조건이다.

3. 행정체계에 분절적 구조와 상호간에 의사소통부재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일원화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조직 체계가 필요하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과 참여에 장이 필요하다.
4. 이를 위해 정부관계자, 민간의 전문가 현장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2-2. 지역아동센터 내에서의 정책제안

1. 지역아동센터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능력, 지역사회와의 소통, 자체내에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역량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에 업그레이드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2.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내에 신뢰구축은 역량강화와 소통을 통한 실제적인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어야만 형성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력, 예산 증진, 검증된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지역사회단위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2-3.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에 대한 제한

1.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체성 개념이 모호한 것은 현실이다. 프로그램의 의한 분류, 역할에 의한 분류, 다양한 기준으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정책화를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정체성 확립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보 되어야 한다.
2.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정체성과 역할 모델을 구체화하는 매뉴얼 개발, 거점형 지역 아동 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정책으로 제안한다.

III. 나오는말

1. 대체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필요성과에 대하여 전문가, 현장활동가, 정책당국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 구체적인 내용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문에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권익향상, 통합적 복지 서비스의 실현,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래사회 안전망구축에 차원에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2. 단순히 재원의 효율적인 배치, 행정의 편의성과 같은 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교육과 복지에 주체인 아동청소년이 정책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논의하는 기본관점은 시장논리보다는 통합적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별과제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현장과의 소통, 복지주체와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3. 내용과 정체성확립에 있어서도 교육주체와 복지 주체간의 상호거리 좁히기 그리고 인식과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철학과 마인드 형성,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와 사업시행 경험을 통해 점진적 체계적 정체성 확립과 내용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 정체성과 내용의 모호함을 극복할 때 비로서 거점형지역 아동센터의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 제도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MEMO

MEMO

서울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서울특별시 위탁
지역아동센터서울지원단

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5번지 교남빌딩 3층
TEL. 02-2632-3125 <http://cafe.daum.net/sueducarer>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56-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TEL. 02-810-5101 www.seoulwomen.or.kr